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추수 감사주일은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미국에 잘 정착해 한 해동안 풍성하게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데서 시작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오게된 배경에는 영국의 종교 탄압으로 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영국에는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로 부터 심한 종교박해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로 부터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 영국인이자면 누구나 국가가 지정한 국교를 믿어야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를 피하기위해 순례자의 조상들(Pilgrim's Fathers)이라 불리는 청교도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국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항을 떠나 그해 12월에 미국의 동부 어느 해안에 도착한 사건이 미국이민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추위를 견뎌야하는 힘든 여행이었지만 이들은 '자유'를 찾아 죽음의 사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메사추세츠 주의 항구에 도착해 이곳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부르고 이곳에서 정착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첫해 추위와 질병으로 절반 가량이 죽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위의 인디언들의 도움과 그들의 노력으로 다음해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신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그곳에 정착하게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감사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11월 4째 주일에 드리는 추수 감사예배의 시작입니다.

'Thanksgiving'은 'Thanks'와 'giving'이 합쳐진 단어 입니다. 미국사람들은 어디에서든 '탱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미국사람들을 많이 만나다보면 무엇이든 '주는것'이 몸에 베여 있는것 같습니다. 미국사람들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가진것에 감사하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thanksgiving perso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무엇에 감사 할 것인지 알아보고 배운대로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1. 좋은 만남에 감사합시다.(3-7절)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모두 의미있는 만남은 아닙니다. 눅 10장 30-37절에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를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거의 반쯤은 죽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좋은 만남은 아닙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만남입니다. 본문 3-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만남은 좋은 만남입니다. 4절에보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 해야 하겠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은 곳입니다.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천대 받는 곳입니다. 그런 그곳에 '반드시' 통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예요? 사람을 만나려구요. 어떤 사람울요? 잘난 사람, 돈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행실이 바른 사람 인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왜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세상의 이득을 얻기위해 만남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앞서 반드시 만나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 연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25절) 예수님은 만나고자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삭개오, 니고데모) 인생의 강도를 만나지 않고 예수님 만남에 감사합시다.

2. 편견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9-18 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편견이 없으십니다. 편견이 무엇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말합니다. 사랑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줌 달라고한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혼혈, 잘못 경배) 예수를 믿고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도 보면, 이삭의 가정에 어떤 편견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 같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편견이 있을 때 자식은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 왔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경건한 여인도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빠해줄 만한 면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무엇을 선물하기 위해서 만나셨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즉 영생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그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편견이 있다면 착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20-26 절)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원합니다.(사 43:7 절) 왜 그렇습니까? 1)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감사의 표현입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이 허약해짐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폭 빠져있다가 실패로 인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예배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불과 합니다. (조상님들께 드리는 제사와 비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잘 모르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첫째**로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장소나 특정한 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전입니다. **둘째**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안에 살아있는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물질이나 육신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의 모든 계시의 말씀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마리아 인들은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결론

감사는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통해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